

태블릿 PC는 초기시장에서 주류 시장으로 진입하기 까지
캐즘을 겪었습니다. 사실 태블릿 PC는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전, 2000년 대 초반에 이미 개발되어 초기시장에
진입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저들이 스마트 모바일에
대한 인식이 낮았고 데스크탑을 선호하던 시기라 대중화
되지 못하고 캐즘에 빠져 사업을 일시적으로 후퇴하게
됩니다. 이후 스마트폰이 보급화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과 펜으로 조작하는 터치스크린 휴대용 전자기기에
익숙해졌고 이에 태블릿 PC는 수 년간 이어져 오던 캐즘을
극복하게 됩니다. 이 사례를 보면 캐즘이 제조사에서 인식
전환을 위해 대대적으로 마케팅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첨단기술에 대중들이 익숙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캐즘이 극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